

2023 새해 이렇게

정인화 광양시장

“청년 활력도시 조성... 1000만 관광시대 발돋움”



신산업 육성·문화관광인프라 확충·책임복지 등 6대 전략 주력 산업인 철강·항만 고도화,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 등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국내외적인 어려운 상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살려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이 될 6대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책임복지 실현 ▲그린인프라·시민 안전망 구축 ▲청년활력도시 조성 ▲농업고소득 작목 육성·농촌활력 등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 운영해 상인들의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시설 개선과 용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재도약의 힘을 얻도록 지원안을 준비했다.

특히 광양시 전역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양 경제의 두 축인 철강과 항만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꾀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모색한다.

광양이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류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료공급에서부터 원료가공, 소재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광양 수소도시 조성 과 수소에너지 산업 선제적 유치 등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향해 수소 산업 전주기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 산업단지 수요에 발맞춰 양적 확대와 질적

으로 고도화된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세풍산단 개발을 가속화하고 동호안을 산업 단지화하는 등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단계별 배후단지 확충, 광양항과 울산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협력 지원에 힘쓰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약사업인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 동상 건립, 구룡산 종합 관광단지 조성, 배알도·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 등 품격 있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주춧돌을 놓을 방침이다.

대하 축제 등 해마다 반복하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비교우위 자원인 음식관광은 먹거리타운 환경 개선과 음식 콘텐츠 정비로 특화 관광자원화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운동주 유고 보존 가옥 주변 복원과 정비, 회양 문헌집 국역 편찬 보급 추진,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환수 추진 등 속도감을 더하고 시민 자존감 회복 및 역사 문화적 정체성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 시장은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광양에서 살아야 할 이 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여성 안전 생활환경 조성, 여성 직업훈련 등 공적 서비스와 출산 친화적 환경은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착도 슬기롭게 추진하고 젊음의 거리 조성,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등 청년들의 정착 지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도심 교통 여건 및 시민이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 등도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끝으로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제출하는 정책 토론회도 활성화해 시민의 소리를 빈틈없이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시켜 남해안벨트 허브 도약”

노관규 시장 현장 시장실 운영 D-90...현장 상주하며 소통 확대

노관규 순천시장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가 2023년 순천의 가장 큰 화두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3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2023정원박람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고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박람회장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을 살펴왔으나 개막 90여 일을 앞두고 주에 3-4일은 박람회장에 상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즉각 소통하며 빠른 의사결정으로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노 시장은 기존의 정월으로는 높아진 시선의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없다며, 획기적인 변화로 2023정원박람회 성공 전략을 설계해 나갔다. 웰니스 시대에 맞는 박람회 콘텐츠 확충,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박람회 개막시기를 앞당기는 등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박람회를 만들고 있다.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정



노관규(왼쪽) 순천시장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원박람회는 ▲재해시설인 저류지를 도심 속 소통·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오천그린광장’ ▲차가 중심이었던 도로를 사람 중심의 싱그러운 잔디길로 탈바꿈한 ‘그린아일랜드’ ▲정원 안에서 특별한 하룻밤 ‘가든스테이’ ▲농경지의 화려한 변신 ‘경관정원’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박람회장 조성 공사는 현재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휴장기간으로, 이 기간 기반시설, 문화행사, 안전·교통대책 등 세부사항을 점검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신청사건립 공사 조달청 입찰 진행

건축 실시설계 기술제안...7월 착·2025년 11월 입주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시공업체 선정 방식을 분리발주로 확정된 순천시청 신청사건립에 대한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신청사는 애초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건축 분야를 포함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통합해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건설기술 심의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변경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현행법상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됐고, 분리발주 시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해 원가 이익을 높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업체에 입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리발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기존의 입찰방식인 실시설

계 기술 제안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해 조달청과 체결한 시설 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신청사 건립공사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어 2025년 11월 신청사를 완공해 입주를 시작하고 2026년 7월 기존 청사 철거 후 지하 주차장 및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순탄하게 새해를 맞이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앞으로 신청사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농작업장 위험환경 개선

작목별 안전관리·농작업 재해예방 2개 사업 27일까지 신청

여수시가 농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보조장비와 보호구, 전문가 컨설팅,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마늘, 토마토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고 농작업 위험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10-1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맞춤형 농작업 재해예방 실천사업’은 마을별 농작업장의 위험환경 개선을 목표로 총 3

개소에서 추진된다. 사업비는 1개소 당 1000만 원으로, 5명 이상 구성된 농업인단체만 신청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여수시 농촌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진흥과(061-659-443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 위험요인 분석과 맞춤형 보조장비 보급으로 농작업장 재해예방 및 작업능률 향상에 많은 장점이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 농업인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 옛 문척교 철거 공사 시작...도로 일부 통행 제한



구례군은 옛 문척교 철거 공사에 따라 군도 9호선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철거를 앞둔 옛 문척교.

구례읍 칠의대대~구성마을

구례군은 옛 문척교 철거 공사에 따라 군도 9호선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옛 문척교는 1972년부터 섬진강으로 나눈 구례

읍과 문척·간전면을 이었으나 2020년 8월 수해 이후 다리가 섬진강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점이 지적돼 철거가 결정됐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례읍 칠의대대 입구부터 구성마을

입구까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통행 제한 기간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맛집 탐방 후 후기 쓰면 상품권

매달 주례별 구매 후기 이벤트...1년간 100명에 총 500만원

곡성군이 2023년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달 주례별로 구매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곡성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한 뒤 개인 SNS에 구매영수증, 사진 5장, 글자 100자 이상 작성해 후기를 게시하면 된다.

매월 우수 구매 후기 5개를 선정하고 모바일 곡성심정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100명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후기 선정 기업에는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1월 이벤트 주제는 곡성군 내 맛집이다. 지역 내 식당, 카페, 디저트가게 등 맛집을 다녀온 후 참여 요건에 맞춰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작성 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당첨

자 발표는 2월 10일이다. 참여 가능한 SNS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다. 각 채널별로 ‘곡성창업동지’ 홈페이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이벤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구매 후기 이벤트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곡성군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를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창업동지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